

지역 소식통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급

정읍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지난 3월 8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신청자 3,235명 중 지원 기준에 적합한 3,183명에 대하여 5월에 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은 2022년 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역업자로 관내에 점포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업장에 50만원씩을(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 지원하였으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이학수 시장은 "경기침체로 큰 고통을 감내한 소상공인에 대한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 캠페인 진행

고창군(군수 심덕섭)은 지난 18일, 고창전통시장, 고창공용버스터미널 상가 및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민간예찰단과 함께 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 활동 행사에는 공무원과 민간예찰단 상인회 등 15여명이 참석했다.

집중안전점검은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예방활동이다.

이번 캠페인은 군민 스스로 내 집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생활속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일환으로 자율안전점검표 배부를 통해 군민들이 직접 안전대전환에 참여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진행했다.

또한,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 신고 시스템인 안전신문고 앱의 설치와 신고방법을 안내 홍보에 주력했다. /고창=김영식기자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 부안군, 서해안 유네스코 브랜드 획득 세계로 나아가는 견결음 시작

부안군은 최근 프랑스 본부에서 개최된 제216회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를 통해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Jeonbuk West Coast Geopark)으로 지정받았다.

2018년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시작으로 약 4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브랜드를 획득함과 동시에 세계적으로 부안군의 지질·생태 자원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2019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지질명소 발굴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역주민의 직접참여 등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차근차근 준비해 왔으며 2022년 10월 그 간 노력의 결실을 맺는 현장평가를 진행하였다.

3일 동안 부안·고창의 현장을 답사하면서 지질명소의 국제적 가치, 탐방 프로그램 운영 현황 지역주민의 참여

등 세계지질공원으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후, 12월 제7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에서는 국제적 네트워크와 지질·생태·문화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성화를 권고하며 민강일치로 전북 서해안 지질공원이 신규 지질공원 지정으로 안전이 상정되었다. 지난 5월 10일 ~ 24일까지 진행된 제216회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이 확정되었다.

부안군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브랜드 획득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견결음이 시작되었다.

부안의 세계지질공원 지정명은 적벽강 채석장, 솔섬, 모항 생선뼈광택계, 직소폭포 등 총 19개소로 경관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 "노후 삶의 질 높이는 긍정적 역할"

## 정읍시, 노인일자리사업 농번기 동안 탄력적 운영

정읍시는 바쁜 농사철인 농번기를 맞아 2023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시는 농사철 농가일손 부족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영농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농번기 기간인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노인일자리사업을 일시적으로 중지한다.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과실수 적과와 노지채소인 마늘, 양파 등 수확등에 인력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운영 중지 기간 중 인력을 투입하여 농사철 인력난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본격적인 영농철 시작으로 농번기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

다고 판단" "노인일자리 사업 수요처 협의를 거쳐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활동을 일시중지" 하여 농사철 농촌의 부족한 인력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하였다.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노년기 소득에 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증가,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 노후 삶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정읍시는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올해 노인 5,461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 동남아시아와 국제교류 첫 걸음 내딛다

## 고창군-말레이시아 사라왁주 미리시, 우호교류 협약 체결

고창군이 관광도시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미리시와 우호교류 협약을 맺으면서 동남아시아와의 국제교류 첫걸음을 내딛었다.

말레이시아를 방문중인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난 19일 말레이시아 사라왁주에서 2번째로 큰 도시인 미리시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미리시 아담 이시우 상 시장을 대표로 미리시 의원, 각 관계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

다. 미리시 시장 환영사, 심덕섭 고창군수 답사,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 축사, 협약서 체결, 선물교환,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양 도시는 경제무역, 문화, 관광, 교육 등 우호교류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내실있고 꾸준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말레이시아 사라왁주에 위치한 미리시는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서 약 300km 북쪽에 위치하며, 말레이시아

반도 서부 해안에 자리하고 있다. 미리시는 말레이시아의 중요한 교통 허브로 선박 건조, 석유 및 가스 산업 등 다양한 산업부문이 활발한 도시이다. 또한 미리시는 다양한 세계 유산을 보유한 도시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과 같이 다양한 세계유산을 보유한 미리시와 교류관계를 맺게 돼 기쁘다"면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사업을 진행하며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 정읍시, 농업·농촌·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

정읍시는 지난 18일 제2청사에서 민선 8기 시정방향을 포괄하는 농정 목표와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2024~2028 정읍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반에 근거하여 법정 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 정읍시 농업과 농촌의 중장기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한다.

보고회는 이학수 시장을 비롯한 농업 관련 부서장 및 농축협, 농민단체



장 등 80여명이 참석하여 시민들의 큰 관심을 보였으며, 향후 정읍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추진방향 및 세부일정 설명 후 이를 토론했는 시간을 가졌다. /정읍=김대환기자

특히 향후5년 민선8기 새로운 농정 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 하기 위해 최종 보고회가 있을 11월초까지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차례 중간보고 및 설명회를 가지며, 농업·농촌 여건 변화에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시 농업·농촌 관련 각 분야의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단순한 계획서로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계획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 대표 농산물인 단풍미인 씨 없는 수박이 100일간의 기다림 끝에 소비자를 만날 준비를 마쳤다.

# 정읍시, '단풍미인 씨없는 수박' 출하 준비 완료

정읍 대표 농산물인 '단풍미인 씨 없는 수박'이 100일간의 기다림 끝에 소비자를 만날 준비를 마쳤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에 따르면 2012년부터 불임꽃가루를 이용한 불 수박 재배기술을 농가에 보급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씨 없는 수박을 꾸준히 생산해왔다. 현재는 재배농가의 숙련된 기술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불철에 씨 없는 수박을 출하하고 있다.

씨 없는 수박 재배방법에는 3배체(3n)를 활용한 재배법과 불임꽃가루를 활용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3배체 재배법은 고온기에 적합하여 여름에 생산되고 불임꽃가루 재배법은 저온기에도 생육이 양호하여 봄에 생산된다. 하지만 불임꽃가루 재배법은 수정작업을 잘못하면 착과불량, 기형과 등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재배

농가의 기술과 경향이 중요하다.

특히 단풍미인 씨 없는 수박은 내장산 지역의 청정환경에서 일교차가 큰 2월부터 재배하기 때문에 육질이 치밀하고 당도가 높을뿐더러 씨를 골라내는 번거로움이 없어 먹기 편리하다.

또한 정읍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빛깔, 신선도, 결점여부, 비파괴 당도 검사 등을 통해 엄격히 선별된 최고품질의 수박만을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전국 주요 유통업체에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믿을 수 있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1~2인 가구 중소형 수박재배 및 연작장해 경감을 위한 수경재배 실증을 통해 소비트렌드 반영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달콤하고 시원한 정읍 단풍미인 씨 없는 수박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